

## SONGWON 그룹, 안정적 성장으로 한 해 마무리

- 2016년 총 매출액은 694,326 백만원
- 매출 총이익은 178,049 백만원
- 매출 총이익률은 25.6% 로 증가
- EBITDA 는 16.4%로 증가
  
- 대한민국 울산- 2017년 3월 24일 SONGWON 그룹(www.songwon.com) 은 오늘 2016년 회계연도 재무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 볼 때 조직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던 한 해였습니다.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의 모든 제품군이 그룹 성장에 이바지했습니다.
- SONGWON 그룹의 매출 수익은 6,943 억원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422 억원입니다. 2016년 폴리머 안정제 사업에서는 원팩 시스템(OPS) 사업이 SONGWON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월에 아부다비에 설립된 세계 최고 수준의 OPS 시설이 가동되었고, 중국 칭다오에 설립한 새로운 JV OPS 공장도 지난 11월에 성공리에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소제와 주석 중간물질 매출도 급등하여 지난 해 전체 매출이 6.1% 상승했습니다.
- 2016년 4분기에는 SONGWON의 EBITDA 와 EBIT 이익률이 각각 15.2% 와 9.7%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EBITDA 는 16.4%로, EBIT 는 11.4%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매출은 환율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통화 환율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16년 상반기 가격은 안정적이었으나, 항산화제 생산 능력이 추가되면서 일부 주요 상품의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객의 일상적인 연말 재고 감축으로 인해 예년처럼 전반적인 수요가 하락했습니다.
- SONGWON은 연중 내내 높은 가동률로 안정적인 생산을 기록하였고 한국 매암 공장의 생산 능력을 성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16년에 SONGWON은 업계 전문성을 심분 활용하고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모든 사업 영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SONGWON을 일류 정밀화학 기업으로 혁신하는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운영 효율성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 가까운 미래에 중국,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를 중심으로 고객이 생산 능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플라스틱 및 폴리올레핀의 수요 증가로 인해 폴리머 안정제가 중간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17년 1분기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2016년에 출시한 새로운 제품군과 혁신 기술 덕분에 성장 가능성이 향상되고 SONGWON의 전반적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합니다. SONGWON은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헤쳐나갈 준비를 갖추었고, 전략적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확신합니다.
- SONGWON 그룹의 CFO 인 Hans-Peter Wüest 는 “앞으로도 운영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SONGWON의 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성장을 놓치지 않고 재무 성과를 달성하며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견실한 대차대조표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연례 보고서 다운로드:

[www.songwon.com/investors/reports-publications](http://www.songwon.com/investors/reports-publications)

##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1965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정밀 화학물질의 개발,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플리머 안정제 분야의 선도기업인 송원산업은 세계 각지에 그룹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관된 글로벌 생산체제와 공급망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라도 전 세계 고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기술진이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songwon.com](http://www.songwon.com)